



학제별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영향요인 비교

이은자¹⁾ · 이여진²⁾ · 김영숙¹⁾ · 조현숙¹⁾ · 김혜순¹⁾ · 김윤미³⁾ · 박광희³⁾ · 김지수³⁾

서 론

연구의 필요성

간호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천학문이며, 간호교육의 일차적인 목표는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간호대상자에게 질적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데 있다(권인수, 2002). 그러므로 의료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복잡하고 다양하게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의료 상황에서 전문직 간호사의 교육을 위해서 임상수행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박정혜(2011)의 연구에 의하면 간호교육기관에서 졸업 후 학생에게 기대하는 능력은 비판적 사고, 숙련된 간호기술, 의사소통 능력, 간호지식, 전인간호수행 능력으로, 3, 4년제 간에 각 부문 별 기대하는 능력 정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고, 4년제 간호학도가 3년제 간호과보다 지도력과 연구 능력에 기대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간호교육제도는 3년제와 4년제 학제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졸업 이수학점과 실습시간은 거의 차이가 없으며 동일한 국가시험에 응시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또한 3, 4년제 간호학생들은 간호수행과 관찰 등 간호역할 행위도 유사한 차이는 없다(손영희 등, 2006).

임상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간호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통하여 확고한 간호지식의 습득은 물론 실무상황에서 간호문제의 정확한 파악과 간호중

재, 의료인과 환자와의 의사소통과 대인관계 등을 다룰 수 있는 기술과 태도를 습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환자의 질적 간호 요구 증가와 간호사고의 위험성과 관련하여 간호학생들의 실습은 실제 간호행위 수행 보다는 관찰 위주의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며(손영희 등, 2006), 따라서 이러한 실습교육을 마친 졸업생이 신규채용이 되면 각 의료기관에서는 임상수행능력이 부족한 신규간호사를 위하여 채용 후 1개월에서 2개월간 실무교육을 재 실시하고 있는 형편이다.

선행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자기주도 학습(양진주, 박미영, 2004), 주문선택실습, 실습내용 만족도와 간호 가치관 확립(김혜순, 이여진, 양인순, 2005)을 보고하였다. 또한 전문직 자아개념과 수간호사의 리더십이 간호사의 업무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며(김영진, 송현경, 이미애, 2011), 의사소통 능력이 문제해결 능력과 간호역량에 효과(이명하, 김현경, 정석희, 문인오, 201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년제 대학의 첫 임상실습을 마친 2학년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사고 성향 및 자기주도적 학습 정도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다(양선희 등, 2009).

그동안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의 확인과 비교는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보고되어 왔으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한 3, 4년제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요인과 관련 요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비교연구는 보고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는 3년제와 4년제 졸업 예정 간호학생들을 대상으로 임상수행능력에 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어 : 간호학생, 임상수행능력

- 1)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2)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교신저자 이여진 E-mail: yjyi@gachon.ac.kr)
- 3) 가천의과학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투고일: 2011년 5월 28일 심사완료일: 2011년 7월 13일 게재확정일: 2011년 7월 14일

요인을 확인하고,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규명하여 임상실습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졸업예정자인 3, 4년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비교함으로써, 각 학제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3년제 간호과생과 4년제 간호학과생의 일반적 특성 및 간호학 관련 특성(이론 및 실습교육 관련 요인)을 파악한다.
- 3년제 간호과생과 4년제 간호학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 및 간호학 관련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비교분석한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졸업을 앞둔 3, 4년제 간호학생들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비교조사 연구이다.

연구 대상 및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는 졸업예정자인 3년제 간호대학 학생 259명과 4년제 간호대학 학생 172명, 총 43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모든 간호학 교과과정을 끝낸 상태인 졸업예정자들의 임상수행능력은 병원 입사 직전의 신규간호사 수준의 임상수행능력일 것으로 생각되며,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비교는, 재학 중인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보다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더욱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3, 4년제 졸업예정 간호학생의 모집단을 13,000여명으로 추정하였을 때, 신뢰수준 95%에서 오차범위 5%의 신뢰구간으로 하였을 때 연구대상자의 수는 373명으로 추정된다(탁영란 등, 200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탈락을 고려하여 431명을 모집하였다. 이중 응답이 부실한 설문지는 제외하여 총 429명의 자료가 연구 분석에 이용되었다.

자료 수집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자가 보고하게 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은 인천과 충청도 지역의 간호대학에 의뢰하여 연구에 대해 설명하고 허락한 4개 대학에서 시행되었다. 윤리적 문제를 고려하

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서면동의를 받고 연구 목적이 설명되어 있는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 작성 시간은 약 15-20분 정도 소요되었다.

연구 도구

● 임상수행능력

임상수행능력은 간호를 수행함에 있어 간호학생들이 보여주고 기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남혜현(1996)에 의해 간호학생의 임상실습평가를 위해 개발된 31문항의 도구 중 간호과정과 관련된 25문항 5점 척도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는 간호과정의 사정, 진단, 계획, 중재, 평가의 항목의 포함된 부분이 임상수행능력을 가장 잘 나타냈을 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수행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당시 남혜현(1996)의 연구에서 31문항을 모두 사용하였을 때 Cronbach's α 는 .95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91이었다.

● 비판적사고 성향

비판적사고 성향은 개인적, 전문적 업무에 있어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한 목적으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개인적인 성향을 말한다(Facione, Facione, & Giancarlo, 1996). 본 연구에서는 비판적사고 성향은 권인수 등(2006)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35문항의 도구로 창의성, 도전성, 개방성, 신중성, 객관성, 진실추구, 탐구성의 8개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35개 문항에 대해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범위를 갖는다. 개발당시 신뢰도 Cronbach's α 는 .89였으며, 이여진(2009)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 전문직 행동

전문직 행동은 간호 전문직업인으로서 지켜야 할 행위규범으로 규칙이나 시간의 엄수, 용모의 단정, 태도, 자세, 대인관계, 및 긍지와 자부심 등(남혜현, 1996)이다. 본 연구에서는 남혜현(1996)이 개발한 31문항의 임상실습평가 도구 중 전문직행동을 측정하는 6문항으로 5점 척도로 구성된 도구로 측정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문직 행동을 잘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 의사소통기술

Laswell은 의사소통은 과정으로써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어떤 효과를 가지고 어떤 경로를 거쳐 말하는가를 포함한다고 하였다(도복늬 등(2005)에서 인용).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기술은

간호학생과 환자와의 의사소통의 도입-전개-끝맺음이 적절했는지 측정하였으며, 이를 위해 유문숙(2001)에 의해 5문항으로 개발된 도구를, 이어진(2008)의 연구에서 9문항으로 수정 개발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이 잘됨을 의미한다. 이어진(2008)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 는 .90이었다.

● 간호학 교육 만족도

간호학교육의 이론과 병원실습의 두 분야에 대한 만족도를 NRS(numeric rating scal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0-1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도구를 사용한 의미는 교육내용별 만족도보다 전반적인 만족도 파악이 본 연구의 목적이었고, 동시에 많은 질문문항을 읽고 대답하는 부담감을 줄이기 위함이었다.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3.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학 관련 특성에 따른 3, 4년제 간호학생간의 유의성 검증은 t-test와 χ^2 -test를 이용하였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학 관련 특성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는 3년제 간호과생 257명, 4년제 간호학과생 172명으로 성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연령($t=-5.85$, $p<.001$)에는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과 지원이유는 중복응답으로 표시하게 하였으며,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3, 4년제 간호학생 모두에서 가장 많았으며, 3년제 간호과생(69.6%)이 4년제 간호학과생(54.6%)보다 많았다. 부모, 선생님 등의 권유에 의해서 간호학과를 지원한 대상자는 3년제 간호과생(17.5%) 보다 4년제 간호학과생(29.1%)에서 더 많았다<Table 1>.

대상자의 간호학 관련 특성

재학 중 흥미 있었던 실습지는 중복응답으로 기입하게 하였으며, 3년제 간호과생들은 중환자실(36.6%)과 수술실(33.1%)에 응답이 가장 많았고, 4년제 간호학과생들은 중환자실(45.9%)과 응급실(34.9%)에 응답이 가장 많았다. 졸업 후 근무 희망부서($t=0.72$, $p=.949$)와 근무 희망기간($t=4.09$, $p=.394$)은 3, 4년제 간에 차이가 없었다.

간호학 이론교육 만족도는 3년제 간호과생들(7.3점)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나 4년제 간호학과생들(7.0점)과의 차이는 없었다($t=1.86$, $p=.063$). 실습교육 만족도는 이론교육 만족도보다 낮았으며, 3년제 간호과생들(7.0점)의 점수가 4년제 간호학과생들(6.5점)보다 더 높았으며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2.43$, $p=.016$). 3년 또는 4년간의 학부에서의 총 성적은 3년제와 4년제 간에 차이가 없었다.

임상수행능력은 4년제 간호학과생(3.7점)이 3년제 간호과생들(3.6점) 점수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2.70$, $p=.007$)<Table 2>. 비판적사고 성향은 4년제 간호학과생(3.4점)이 3년제 간호과생들(3.3점) 점수보다 높았으며 차이가 있었다($t=-2.69$, $p=.008$). 전문직 행동도 4년제 간호학과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N=429)

Characteristics	n(%) or M(SD)		χ^2 or t	p	Range
	Associate (n=257)	Bachelor (n=172)			
Gender					
Male	6(2.3)	1(0.6)	1.96	.161	-
Female	252(97.7)	171(99.4)			
Age(years)					
18-20	15(5.8)	1(0.6)	7.90	.019	-
21-25	231(89.5)	163(94.8)			
Above 26	12(4.7)	8(4.7)			
	21.9(2.05)	23.0(1.90)	-5.85	<.001	18-43
Reasons to applying*					
To get a job	179(69.6)	94(54.6)	-	-	-
For voluntary service	16(6.2)	9(5.2)			
On the recommendation from significant other	45(17.5)	50(29.1)			

*Multiple responses

<Table 2> Characteristics related to nursing

(N=429)

Characteristics	n(%) or M(SD)		χ^2 or t*	p	Range
	Associate (n=257)	Bachelor (n=172)			
Departments interested in†					
Intensive care unit	94(36.6)	79(45.9)			
Surgery	20(7.8)	19(11.0)			
Internal medicine	28(10.9)	13(7.6)			
Operating room	85(33.1)	46(26.7)			
Obstetric&Gynecology	69(26.8)	37(21.5)			
Pediatrics	26(10.1)	17(9.9)			
Emergency room	20(7.8)	60(34.9)			
Others	31(12.1)	15(8.7)			
Working places desired after graduation					
Hospital	228(89.8)	153(90.0)			
Community	9(3.5)	7(4.0)			
Abroad	12(4.7)	7(4.1)	0.72	.949	-
None	2(0.8)	2(1.2)			
Others	3(1.2)	1(0.6)			
Working periods desired after graduation (year)					
1-3	56(22.0)	44(25.9)			
4-5	60(23.5)	48(28.2)			
6-10	94(36.9)	51(30.0)	4.09	.394	1-40
11-15	6(2.4)	6(3.5)			
above 15	39(15.3)	21(12.4)			
	9.5(7.57)	8.6(7.00)	1.25*	.214	
Satisfaction					
Theoretical education	7.3(1.64)	7.0(1.7)	1.86*	.063	2-10
Practice education	7.0(1.75)	6.5(1.9)	2.43*	.016	0-10
Grade point average (score)					
Less than 3.0	1(0.4)	0(0.0)			
3.01-Less than 3.5	42(17.9)	17(10.4)			
3.51-Less than 4.0	141(60.0)	113(69.3)	5.70	.127	-
Above 4.0	51(21.7)	33(20.2)			
	3.7(0.32)	3.7(0.25)	-1.30*	.194	2.7-4.5
Clinical competence	3.6(0.42)	3.7(0.40)	-2.70*	.007	2.6-5.0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3(0.31)	3.4(0.28)	-2.69*	.008	2.5-4.4
Professional conduct	4.0(0.53)	4.2(0.47)	-4.19*	<.001	2.3-5.0
Communication skill	4.0(0.59)	4.1(0.51)	-3.21*	.001	2.6-5.0

* t-test † Multiple responses

생(4.2점)의 점수가 3년제 간호과생들(4.0점)보다 높았으며 차이가 있었다($t=-4.19, p<.001$). 의사소통 기술도 3년제 간호과생들(4.0점)보다 4년제 간호학과생(4.1점)의 점수가 높았으며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t=-3.21, p=.001$).

임상수행능력과 일반적 특성, 간호학 관련 특성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간호학 관련특성 중 3, 4년제 학생 간에 차이가 있었던 요인과 임상수행능력간의 상관관계는 <Table 3>과 같다. 임상수행능력은 이론교육 만족도($r=0.33, p<.001$), 실습교육 만족도($r=0.30, p<.001$), 비판적사고 성향

($r=0.52, p<.001$), 의사소통 기술($r=0.50, p<.001$), 전문직 행동($r=0.52, p<.001$)과 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요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년제 간호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3, 4년제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이론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만족도, 비판적 사고 성향, 의사소통 기술, 전문직 행동의 5가지 변수를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단계적)을 실시하였다. 3년제 간호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49.88,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9.0% 이었다(Adj $R^2=$

<Table 3>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429)

	r(p)				
	Clinical competence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conduct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0.33 ($<.001$)	-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0.30 ($<.001$)	0.58 ($<.001$)	-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0.52 ($<.001$)	0.11 ($.016$)	1.00 ($.028$)	-	
Professional conduct	0.52 ($<.001$)	0.19 ($<.001$)	0.12 ($.007$)	0.44 ($<.001$)	-
Communication skill	0.50 ($<.001$)	0.14 ($.003$)	0.19 ($<.001$)	0.41 ($<.001$)	0.54 ($<.001$)

49). 3년제 간호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비판적사고 성향($\beta=.28$), 전문직 행동($\beta=.24$), 이론교육 만족도($\beta=.20$), 의사소통 기술($\beta=.15$), 실습교육 만족도($\beta=.14$)의 순이었다<Table 4>.

4년제 간호학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4년제 간호학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 모형은 유의하였고($F=28.97$, $p<.001$), 모형의 설명력은 40.0% 이었다($Adj R^2=.40$). 투입된 5개의 요인 중 실습교육 만족도는 회귀식 모형에 진입하지 못하였다. 4년제 간호학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비판적사고 성향($\beta=.35$), 의사소통 기술($\beta=.25$), 이론교육 만족도($\beta=.23$), 전문직 행동($\beta=.19$)의 순이었다<Table 5>.

논 의

본 연구에서 임상수행능력은 4년제가 3년제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학 관련 특성은 4년제 간호학과생이 3년제 간호과생보다 비판적사고 성향, 의사소통 기술, 전문직 행동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혜(2011)는 3년제와 4년제 60개 간호교육기관의 교육목표를 분석하여 간호지식, 숙련된 간호기술, 비판적사고, 의사소통 능력 등에 대해 기대하는 능력은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즉 3, 4년제 간호교육기관의 간호교육 목표는 간호학생들에게 간호지식, 숙련된 간호기술, 비판적 사고,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해 기대하는 능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는 4년제 간호학과생이 3년제 간호과생에 비해 비판적사고 성향, 의사소통 기술, 전문직 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년제 간호학과생과 3년제 간호과생의 경우 간호교육과정에 차이가 있으며 실습교육에도 차이가 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반면 실습교육의 만족도는 3년제 간호과생이 4년제 간호학과생보다 높았고,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간호학과 지원동기가 3년제 간호과생이 4년제 간호학과생 보다 부모, 지도교사의 권유보다는 본인이 원해서 간호학을 선택했

<Table 4>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in associate students

(N=257)

Independent variables	BETA	B	S.E	t	p	Adj R ²	F	p
Constant		.54	.21	2.54	.01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28	.38	.08	5.01	$<.001$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20	.05	.02	3.24	.001	.49	49.88	$<.001$
Professional conduct	.24	.19	.05	4.07	$<.001$			
Communication skill	.15	.11	.04	2.50	.013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14	.03	.01	2.29	.023			

<Table 5>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in bachelor students

(N=172)

Independent Variables	BETA	B	S.E	t	p	Adj R ²	F	p
Constant		.15	.34	0.42	.672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35	.50	.09	5.51	$<.001$			
Communication skill	.25	.20	.05	3.78	$<.001$.40	28.97	$<.001$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23	.05	.02	3.67	$<.001$			
Professional conduct	.19	.16	.06	2.75	.007			

고, 취업을 위해서라는 응답이 더 많은 점과 우선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울러 실습환경, 실습지도, 내용 및 실습에 대한 기대의 차이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본다.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는 이론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만족도, 비판적사고 성향, 의사소통 기술, 전문직 행동의 다섯 가지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 4년제 학제 간 차이에서 3년제 간호과생의 경우는 비판적사고 성향, 전문직 행동, 이론교육 만족도, 의사소통 기술, 실습교육 만족도의 순으로 나타났고 49.0%의 설명력을 보여 주었다. 반면 4년제 간호학과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요인은 비판적 사고성향, 의사소통 기술, 이론교육 만족도, 전문직 행동의 순으로 나타났고 40.0%의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두 학제 모두 임상수행능력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비판적 사고 성향이였다.

이론교육의 만족도는 3, 4년제 모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으나, 실습교육 만족도는 4년제 간호학과생의 경우 3년제와는 달리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진주(2009)의 3년제 간호과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상실습 만족도, 비판적사고 성향이 임상수행능력에 주요 영향요인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결과이나, 4년제 간호학과생의 경우 3년제 간호과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낮고, 임상수행능력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인으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원인 분석과 결과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마련을 함으로써 임상실무능력 향상 제고를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손영희 등(2006)의 3, 4년제 졸업 예정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 만족도에 대한 연구에서 3년제 간호과생들의 경우 임상실습교육이 편의에 따라 선정된 곳에서 이루어지며, 4년제 보다 단기간에 교육과정을 마쳐야 하므로 간호관찰이나 간호수행에서 4년제 보다 낮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하여 3년제 실습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결과를 보여 주고 있어 실습교육 환경, 실습지도 등에 대한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본다.

3, 4년제 학생 모두에게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확인된 비판적사고 성향은 양선희 등(2009)의 연구에서 나타난 비판적사고 성향이 높은 학생들이 임상수행능력 정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였으며, 이러한 비판적사고 성향을 길러 줄 수 있는 교육은 간호과정 교과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어진(2009)은 임상경력 5년 이상인 3년제 전문학사 간호사 대상으로 간호과정을 재교육 한 후 이들의 비판적사고 성향이 향상되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3, 4년제 간호학생 모두 대상자의 간호문제를 비판적으로 탐색하고 창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을 함양할 수 있는 간호과정 교과 운영의 강화가 더 요구된다.

전문직 행동은 3, 4년제 모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학생들의 임상실습과정에서 바람직한 태도의 강조, 집단회 참여 및 발표의 격려, 장래의 전문인으로서 학문에 대한 연구와 탐구하는 자세, 간호직에 대한 긍정적 직업관을 간직하도록 함으로서 임상수행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Richard와 Leta(2003)는 최근 사회 변화에 따라 대학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능력으로 친절, 동정심, 공감, 자기이해 등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성은 전문 직업관을 확립하기 위해서 기초가 되며, 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능력으로 지적 되고 있다 (Rochester, Kilstroff, & Scott, 2005; Webber, 2002).

의사소통 기술은 3, 4년제 모두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기술은 간호교육에서 졸업 후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로 제시되었고(Freeman, Voignier, & Scott, 2002),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과 손연정(2002)은 표준화 환자를 이용한 실습교육이 전통적인 강의/모형교육보다 의사소통능력의 향상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환자와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뮬레이션 교육이나 표준화 환자처럼 구체적인 의사소통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 등을 줌으로서 의사소통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 3년제 간호과생이 4년제 간호과생보다 임상수행능력, 비판적사고 성향, 전문직 행동 및 의사소통 기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3년제 간호과생들의 임상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이들 요인들을 향상시킬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비판적사고 성향, 전문직 행동, 의사소통 기술, 이론교육 만족도, 실습교육 만족도로 나타났다. 상기 요인들이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친 정도는 3년제의 경우 49.0%, 4년제 간호과생의 경우는 실습교육만족도가 설명 요인에서 배제되었으나 설명력은 40.0% 이었다.

그러나, 이론교육 만족도와 실습교육 만족도에서 4년제 간호과생들이 3년제 간호과생들보다 낮게 나타났고, 실습교육 만족도가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점은 4년제 간호과생들의 실습교육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재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다. 4년제 간호과생들이 3년제 간호과생보다 더 나은 실습환경에서 실습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 밖에 4년제 간호과생들의 실습교육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병원실습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또한 실습교육 만족도가 낮은 것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인수 (2002). 간호학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연구논문 분석. *대한간호학회지*, 32(2), 706-715.
- 권인수, 이가연, 김경덕, 김영희, 박경민, 박현숙, 손수경, 이우숙, 장금성, 정복레 (2006).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 성향 측정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6(6), 950-958.
- 김영진, 송현경, 이미애 (2011). 간호사가 자각하는 전문직 자아개념. 수간호사의 리더십과 간호사 업무수행 능력간의 관계. *간호행정학회지*, 17(1), 96-105.
- 김혜순, 이어진, 양인순 (2005). 재학시 주문선택 실습이 간호사의 임상수행능력에 미치는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1(2), 206-213.
- 남혜현 (1996). *간호학생을 위한 임상실습 평가도구의 개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서울.
- 도복늬, 이길자, 이정지, 오경옥, 안황란, 박현숙, 이경리, 이해경, 김연화 (2005). *인간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서울: 정담미디어.
- 박정혜 (2011). 간호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육성해야 하는 능력에 대한 고찰-학제 및 일반적인 대학교육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17(1), 74-87.
- 손영희, 강현숙, 박영숙, 한혜자, 권성복, 조경숙, 임난영, 김동옥, 김주현, 손행미, 이은희, 이어진 (2006). 3, 4년제 졸업 예정 간호학생의 간호역할에 대한 관찰 및 수행정도 비교 연구. *기본간호학회지*, 13(2), 172-181.
- 양선희, 이옥철, 이우숙, 윤진, 박창승, 이숙정 (2009). 교수학습법에 따른 3개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과 임상수행능력.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149-158.
- 양진주 (2009).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5(2), 159-165.
- 양진주, 박미영 (2004). 간호학생의 임상수행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의 관계.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0(2), 271-276.
- 유문숙, 유일영, 박연옥, 손연정 (2002). 기본간호학 실습교육 방법에 따른 학생들의 간호수행능력의 비교. *대한간호학회지*, 32(6), 327-335.
- 이명하, 김현경, 정석희, 문인오 (2011). 간호관리학 임상실습에서 과제수행방식이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에 따라 문제해결 능력과 간호역량에 미치는 효과. *간호행정학회지*, 17(1), 106-114.
- 이어진 (2008). Blended Learning을 이용한 임상실습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간호교육학회지*, 14(1), 30-37.
- 이어진 (2009).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간호사들의 임상경력에 따른 간호과정 재교육의 효과비교-속련성, 비판적 사고성향, 임상 의사결정 능력을 중심으로. *간호행정학회지*, 15(2), 275-283.
- 탁영란, 강경아, 김주환, 김태경, 김혜옥, 송정희, 윤이화, 윤혜상, 이승수, 정덕유 (2009). *간호사를 위한 실무통계학*. 서울: 포널스출판사.
- Facione, P. A., Facione, N. C., & Giancarlo, C. F. (1996). *The california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ventory test manual*. 1st. ed, Rev. California: The California Academic Press/Insight Assessment.
- Freeman, L. H., Voignier, R. R., & Scott, D. L. (2002). New curriculum for a new century: Beyond repack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14(1), 38-40.
- Richard, J. S., & Leta, H. (2003). Responsibility to the frenzy to assess learning in higher education. *Change*, 35(1), 10-19.
- Rochester, S., Kilstoff, K., & Scott, G. (2005). Learning from success: Improving understanding the capabilities of successful nurse graduates. *Nurse Education Today*, 25, 181-188.
- Webber, P. B. (2002). A curriculum framework for nursing. *Journal of Nursing Education*, 41(1), 15-24.

Comparison of Factors affecting Clinical Competen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mpleted Nursing Courses

Lee, Eun-Ja¹⁾ · Yi, Yeo-Jin²⁾ · Kim, Young-Sook¹⁾ · Jo, Hyun-Sook¹⁾
Kim, Hye-Soon¹⁾ · Kim, Yun-Mi³⁾ · Park, Kwang-Hi³⁾ · Kim, Ji-Soo³⁾

1)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2)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3)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Purpose: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influencing factors of clinical competence between associate and bachelor nursing students completing nursing courses. **Method:** The subjects were 429 students completing the nursing courses (172 bachelor course students, and 257 associate course students). The study design was cross sectional. **Results:** Bachelor students showed a significant higher score in clinical competence than associate students. There were significant influencing factors on clinical competence including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conduct, communication skill, theoretical education satisfaction, and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The strongest factor influencing clinical competence was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All the factors mentioned above explained 49% of clinical competence in associate courses, and 40.0% in bachelor courses excluding the factor of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The level of theoretical and practice education satisfaction of bachelor course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associate.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associate course nursing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i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professional conduct, and communication skill. Bachelor course nursing students should be encouraged in practical education including practical environments, instruction methods, and content for improving clinical competence.

Key words : Clinical competence, Nursing students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Yi, Yeo-Jin

Department of Nursing, Gachon University of Medicine and Science

191, Hambakmoe-ro, Yunsu-dong, Yunsu-gu, Incheon 406-799, Korea

Tel: 82-32-820-4217 Fax: 82-32-820-4201 E-mail: yjyi@gachon.ac.kr